

2021~2025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II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비전과 전략

1 추진 방향성

- 제4차 계획이 적용될 '21년~'25년은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
⇒ 미래 한의약 수요와 산업발전 요구를 충족할 대책 마련 필요

2 중점 목표

- 인구고령화와 돌봄부담 증가 등에 대비한 지역사회 생활밀착형 돌봄체계 구축 필요
⇒ 한의약 건강돌봄, 일차의료 강화 등을 통한 지역 건강 복지 증진
-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한의약 치료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한의 서비스 질 제고
⇒ 한의약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등 이용체계 개선
- 취약한 산업구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하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 필요
⇒ 한의약 연구개발 지원, 성장기반 마련 등 통한 산업 혁신성장
- 급성장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한의약의 비중과 역할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전략 추진 필요
⇒ 글로벌 교류협력 활성화 및 해외진출 확대 등 경쟁력 강화

3 비전과 전략

비전



한의약을 통한 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01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 ①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 ②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02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 ① 한약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 ② 한의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03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 ① 한의약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 ②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04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 ① 한의약 글로벌 교류 협력 활성화
- ② 한의약 산업 해외진출 확대

4대 목표
및
추진 전략

2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1 한약재 품질 향상 및 공급체계 개선

현황

✓ 국내 한약재 자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부족

- 국내외 식물성 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다양한 수요 증가로 지속적 성장 추세*이며 나고야의정서 등으로 생물자원 국내생산 중요성 부각
 - * 국내 '13년~'17년 연평균 7.6% 성장, 국외 '07년~'17년 연평균 6.6% 성장
- 생물산업의 원천이 되는 생물자원의 확보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나 약용식물 유전 자원 확보 및 보존을 통한 작물화 및 활용 연구는 미흡

✓ 소량소비 한약재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

- 한방의료기관·한약국은 규격품 사용 의무가 있으나, 601종 규격 대상 한약재 중 일부 소량소비 한약재 공급이 부족
 - 한방의료기관과 한약국 등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소량소비 한약재를 규격품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급체계 구축 필요

표 17 소량소비 한약재

구분	주요 품목	비고
규격품 미생산	강향, 경납, 경천, 계관화, 고목, 곡정초, 관금전포, 권삼, 굴핵, 금성자, 길초근, 나도근, 낙석등, 낭독, 노감석, 노봉방, 녹반, 녹제초, 뇌환, 누고, 능소화, 당약, 대극, 대산, 동과피, 동충하초, 마발, 마전자, 마편초, 마황근, 목근피, 목방기 등	198종
연간 1톤 미만 생산	감송향, 건칠, 계심, 고련피, 곡아, 곤포, 과체, 관중, 괴각, 괴화, 권백, 귀전우, 노회, 녹각교, 누로, 대자석, 대풍자, 동규자, 등피, 맹충, 목별자, 목적, 밀몽화, 반묘, 반지련 등	123종

주요 내용

1 한약재 자원 경쟁력 강화 지원 확대

① 한약재 자원 수집 및 보존('21~)

- 국내외 약용식물을 수집하여 유전자원을 증식 및 보존, 형태적 특성 평가를 통한 분류동정 및 표본 바우처 등록 진행
- 유용 약용식물자원 추출물 제조 및 활용 지원

② 한약재 자원 표준재배기술 개발('21~)

- 약용작물 종자 생산방법 표준화 및 매뉴얼 보급 추진('21)
 - 우량 종자 생산 적지 규명, 채종적기, 저장방법 확립, 채종 매뉴얼 발간
- 약용작물 생력화 기술(파종·정식, 수확 작업 기계화) 개발('22~'25)
- 약용작물 기후변화 대응 생산영향 평가 및 적응기술 연구('20~'24)

③ 안전한 한약재 자원 생산 확대('21~)

- 재배면적 500ha 이상 및 대량 수입의존 작물의 품종 국산화 추진

대면적 재배 약용작물	수입의존 약용작물
• 오미자 : 영양번식 확립, 숙기(조·만생) • 더덕 : 고수량성, 유효성분 고함량 • 도라지 : 내습성, 배수체 다수성 • 당귀 : 내고온성, 내추대성 • 황기 : 내습성, 일대잡종 품종육성	• 작약 : 지표성분 기준 적합, 다수성 • 감초 : 지표성분 고함유, 약전 기준부합 • 지황 : 내병성(무병묘, 점무늬병) • 삼주 : 약전규격 기준부합 • 천궁 : 내고온성, 변이창출(돌연변이)

- 약용작물 품종 조기육성 및 고순도 종자생산 기술 개발

- 세대단축 기술 개발(약배양 : 더덕, 도라지) 및 변이 확대(돌연변이 : 천궁), 계통육성 및 고순도 일대 잡종(F₁) 품종 육성체계 확립

- 약용작물 신품종 농가 현장 실증 및 신품종 현장평가 추진

④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21~)

- 약용작물종자협의체를 통한 약용작물 종자 공급
-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요 많은 지황, 단삼 국내품종 개발 및 보급

⑤ 한약재 자원 감별기술 개발('21~)

- 법정 보호종 및 의약용 소재 등 생물산업소재 중심으로 DNA바코드 및 슈퍼바코드 분석 우선순위 대상 종 선정
- 표준 DNA바코드 분석 및 정보 확보를 진행하고, 이에 의해 종판별이 어려운 주요 생물산업소재 종은 최신종판별기법인 슈퍼바코드 분석 추진
- 생물자원 종판별 종합 시스템 구축 및 업무 협력 체계 구축

2 한약재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급체계 개선

①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추진('21~)

-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가 우수한약*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추진

* 우수한약(Premium Herb) = 친환경 한약재(농식품부 기준) + 의약품 규격(식약처 기준)

-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우수한약 사업단*을 공모·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한약재를 생산·제조·소비하는 농민·규격품 제조업자·한의사 등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3~5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우수한약을 자체 계획에 따라 생산-제조-유통

② 소량소비 한약재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22~)

- 소량소비 한약재*를 규격품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제조업소 선정·지원 검토

* 3년간 규격품 생산실적이 없거나, 1톤 미만 생산 소량소비 한약재

- 사라져가는 희귀 한약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북한·중국 등과 학술교류 강화